

미국 “탈레반 배타적 정부 구성에 우려…지켜볼 것”

“몇몇 소속·행적 우려스럽고 여성 아무도 없어” 지적
“아프간 떠나기 원하는 이들에 안전한 경로 보장해야”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 재집권에 성공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과도 정부 구성을 공개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탈레반이 발표한 내각 명단에 우려를 나타냈다.

7일(현지시간) AFP, AP 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아프간 과도 정부 내각) 명단에 오르지 탈레반이나 제휴 조직원들만 이름을 올렸고 여성은 아무도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몇몇의 소속과 행적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성명은 “탈레반이 과도 정부 내각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으로 탈레반을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프간인들이 더욱 통합적인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점에 대해 분명한 기대를 보여왔다”고 전

했다.

앞서 탈레반은 이날 수도 카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몰라 모하마드 하산 아룬드 정부 수반 등 과도 정부 내각 명단을 공개했다.

하산은 탈레반이 결성된 남부 칸다하르 출신으로 지난 20년간 탈레반의 최고 위원회인 레흐바리 슈라를 이끌었다.

그간 정부 수반 후보로 거론됐던 압둘가니 바라다르의 새 정부에서 부수반을 맡기로 했다.

탈레반의 연계조직인 하카니 네트워크를 이끄는 시라주딘 하카니는 내무부 장관을 맡게 됐고, 탈레반 창설자 무하마드 오마르의 아들인 몰라 모하마드 야쿠브는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미국 정부는 하카니 네트워크를 테러 그룹으로 지정했으며, 시라주딘 하카니 체포에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수백만

달러의 포상금을 내걸기도 했다.

미국 국무부는 아프간 과도 정부에 대한 우려와 함께 탈레반이 아프간을 떠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안전한 경로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탈레반이 합의된 목적지를 향해 아프간을 출발할 준비가 돼 있는 항공기를 허가하는 것은 물론, 여행 서류를 가진 외국인이나 아프간인에 안전한 경로를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아프간 땅이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탈레반이 보장하고, 아프간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접근이 허용돼야 한다는 분명한 기대를 재차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공화당 의원들과 일부 민간 활동가들은 전세기가 아프간에서 이륙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카타르 도하에서 아프간 측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적법한 서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탈레반이 아프간 출국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7일(현지시간) 과도 정부 내각을 발표한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총을 든 탈레반 대원들이 반(反)파키스탄 시위대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이날 탈레반 대원들은 반파키스탄 시위대를 향해 발포, 여러 명이 다쳤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파키스탄은 1990년대 중반부터 탈레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아프간 문제에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P=연합뉴스

“코로나, 인플루엔자처럼 변이해 계속 나타날 것”

WHO “계속 영향 미치는 바이러스 중 하나 될 것”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가 독감처럼 변이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8일 CNBC 방송에 따르면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코로나바이러스를 제거하거나 퇴치할 가능성은 아주 적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라이언 팀장은 코로나19가 백신 접종이 잘 이뤄지지 않은 전 세계 각국에서 계속 변이되고 있고 이를 근절하려는 이전의 희망이 줄어들면서 우리와 함께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이 바이러스는 우리 곁에 머물러 있고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인플루엔자 대유행 바이러스처럼 진화할

것이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바이러스 중의 하나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보건기관 관계자나 전문가들도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백신이 코로나19 박멸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이전부터 말해왔다고 CNBC는 전했다.

백신제조업체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최고경영자와 백악관 수석 의학고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 등 여러 전문가는 세계가 인플루엔자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WHO 코로나19 기술팀장 마리아 판케르크호버는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아

쉬움을 표시했다.

그는 “우리는 이 팬데믹 초기에 기회를 가졌다. 이번 팬데믹은 이렇게까지 심할 필요는 없었다”며 전 세계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초기 조치를 잘 했더라면 오늘날의 상황은 매우 달라졌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백신 접종 확대에도 코로나19 변이가 계속 발생하며 전 세계적으로 감염 확산이 지속하는 가운데 완전한 종식 대신 일상 속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가 퍼지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변이가 여럿 나타난 상태로, WHO는 알파와 베타, 감마, 델타 등 4종을 ‘우려 변이’로 지정했으며,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관심 변이’는 에타, 요타, 카파, 람다, 뮤 등 총 5종이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교도소 화재 ‘참사’

최소 41명 사망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외곽의 한 교도소에 불이나 최소 41명이 숨졌다.

8일 일간 콤포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5분께 반튼주의 땅그랑 교도소

에서 불이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법무인원부 대변인은 “새벽 시간에 땅그랑 교도소 C블록에서 불이 났다”며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발표

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41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 73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불이 나자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생존자들을 대피시키고 진화작전을 펼쳤다.

땅그랑 교도소 관계자는 수용인원이 총 2천72명이라며, 불이 난 C블록에는 마약사범 등 122명을 수용 중이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국에서 ‘델타 변이’ 확산으로 7일(현지시간) 누적 확진자 수가 4천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뉴욕의 한 코로나19 이동 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워지는 지구 적응…동물 체형 바뀐다”

열 발산 기능 부리 등 커져

지구온난화에 적응하느라 동물들이 생존을 위해 체형을 바꿔가고 있으며, 특히 조류에서 이런 진화 현상이 더 두드러진 것으로 지적됐다.

동물은 부리나 귀 등 부속기관(appendage)을 통해 열을 발산하며 체온조절을 하는데, 더워지는 지구에 맞추려다 보니 이런 기관의 크기가 커지고 전체적인 몸의 비율이 바뀌면서 체형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 디킨 대학 조류학자 사라 라이딩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조류를 중심으로 기온 상승과 기후변화에 따른 동물의

체형 변화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과학 저널 ‘생태와 진화 흐름’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부속기관의 형태를 다룬 과거 연구 결과를 체온조절 관점에서 재분석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호주 앵무새로 지난 1871년 이후 여러 종(種)의 부리 크기가 4-10% 커졌으며, 여름철 기온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 검은눈방울새도 부리 크기와 겨울철 기온 간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포유류 중에서는 숲쥐의 꼬리가 길어지고, 뒤쥐는 꼬리와 다리가 길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멕시코 남서부 규모 7.0 강진

건물 흔들리고 쓰나미 경보

멕시코 케레로주 아카폴코 남서쪽 17km 지역에서 현지시간으로 7일 오후 8시 47분께(한국시간 8일 오전 10시 47분)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다.

AP, 로이터 통신은 강한 진동에 멕시코 남서부 지역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으며 200마일(약 322km) 가까이 떨어진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도 건물이 흔들리는 등 강한 진동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케레로 주 당국은 지진으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도로로 바위가 굴러떨어졌다고 말했다.

멕시코 시티 일부 지역에서는 땅이 1분 가까이 흔들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쓰나미경보센터는 지진이 발생한 직후 쓰나미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진 발생 깊이가 12.6km로 얕아 진동을 증폭시켰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지국

지방지사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광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쪽지사 061)278-0740

• 남쪽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

CMYK